

# 2030 직장인 10명 중 4명 '잡호핑족'

20~30대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능력 개발과 급여 상승을 위해 1년에서 3년 단위로 여러 번 이직하는 '잡호핑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호핑은 직업을 의미하는 '잡(job)'과 뛰는 모습을 표현한 '호핑(hopping)'이 결합된 단어로, 경력을 쌓아 여러 번 이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20~30대 직장인 40%는 1년에서 3년 단위로 이직하는 '잡호핑족'이다. 이미지=shutterstock

과 및 인사사고에 대한 불만족' (13.3%),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족' (12.0%)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이직 주기를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미만인 24.2%,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23.9%,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18.7%, 2년에서 3년 미만인 15.5%로 나타나는 등, 비교적 짧게 근무한 뒤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이날, 지난달 22~31일 20~30대 직장인 1,724명을 대상으로 '잡호핑족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스스로를 잡호핑족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8.8%였다고 밝혔다.

잡호핑족이라고 답한 직장인들에게 이직을 결정하는 이유(복수응답)를 물었을 때 '연봉을 높이기 위해'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4.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더 큰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22.7%), '상사와 동료에 대한 불만' (15.7%),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를 시켜서' (14.9%), '직급을 높이기 위해' (13.9%), '성

한편 잡호핑족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긍정적' (51.0%), '개인 역량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 (39.6%), '업계 동향 등 취업, 이직 관련 정보가 많을 것 같다' (33.6%) 등 긍정적인 답변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기는 어려울 것 같다' (31.4%), '끈기나 참을성이 부족할 것 같다' (10.4%), '조직을 생각하지 않고 애사심이 없을 것 같다' (8.1%) 등 부정적 답변은 비교적 낮은 순위에 올랐다.

# 긴장마에 채소, 과일값 폭등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낙과, 침수 등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더구나 지난 봄 냉해 피해를 입었던 과일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긴 장마로 과일, 채소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shutterstock

한국농어촌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사과(후지) 10kg 평균 도매가는 7만5천160원으로 평년(3만9천896원)보다 88.39% 올랐다.

포도(거봉) 2kg 평균 도매가격은 1만7천720원으로, 평년(1만2천997원)에 비해 36.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 15kg 도매가격은 5만9천220원으로 평년 대

비 16.9% 상승했다. 참외 10kg는 3만3천660원, 복숭아 4.5g는 2만2천900원으로 각각 평년보다 28.4%, 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소값도 크게 올랐다. 양파 20kg는 2만860원으로 평년에 비해 14.5% 올랐다. 붉은고추 10kg(28.5%), 깎마늘 20kg(20.5%), 적상추4kg(76.0%) 등 거의 모든 채소값이 급등했다.

이번 사태가 추석까지 이어질 것이라 분석도 있다. 채소 가격 급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까스로 버티온 식당, 식자재업체들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 수도권 주택 임대 시장 위축



▲ 서울 강남의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shutterstock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3일 '디지털타임스'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2월 1만3,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진 것이다.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344건으로 2월 1만9,232건에 비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도 전세나 월세 계약 건수가 감소 추세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714건으로 2개월 연속 줄었고 5월 8,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 역시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위축됐다. 경기부동산포털에 올라온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월에 2만710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계속 줄어 지난달에는 1만2326건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지난달 이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은 2614건으로 2월 4819건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이 같은 임대 시장의 위축세는 정부가 지난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면서 더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 묶는 방안의 도입이 확실시되면서 전셋값은 치솟고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임대 시장과 거꾸로 매매 시장은 달아올랐다. 정부의 규제에도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낀 '패닉 바잉' (공황 구매)이 가세하면서 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만5,589건으로 2006년 10월 1만9,798건과 11월 1만5,757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았다. 경기도의 6월 아파트 매매도 3만4,95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시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 **상담문의**